



권성 구본길



전조 양학선



배담민 이용대



양중 임동현

불광교육원 가을강좌 눈길

9월 개설...“벌써 기다려집니다”

기본교육부터 고승들의 역사·사상
경전 강좌까지 다채로운 강좌 마련

불교의 기본부터 한국 고승들의 수행담, <육조단경>까지 불교의 정수를 알 수 있는 법석이 마련된다. 서울 불광사는 가을을 맞아 9월부터 다양한 불교교육 아카데미를 불광사 교육원에서 실시한다.

9월 15일부터는 불교에 입문하는 초보 불자를 위해 불교란 무엇이며, 다른 종교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교육이 진행된다. 강의는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오후 7시 30분, 토요일 오후 3시에 3개월에 걸쳐 진행된다. 교육과정에는 불자로서의 품성과 예절, 부처님의 생애와 교리, 수행방법 등을 비롯해 해인사 수련대회가 포함된다. 참가자들은 교육과정을 마치면 오계를 수지하고 법명을 받아 진정한 불자로서 거듭나는 기회를 얻는다.

9월 12일부터는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에 총12회에 걸쳐 '한국의 고승과 불교사상' 강좌가 진행된다. 이번 강좌는 지난 봄 '붓다와 서양 철학자의 대화'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강좌다.

동아시아 불교의 초석을 다진 승랑 스님, 유식학의 새장을 연 신라학자 원축 스님, 해동불교의 신 사색을 연 화쟁보살 원효 스님, 일승법계도와 해동의 화엄사상을 일으킨 의상 스님, 남종선의 전래와 구산

선문을 성립한 도의 스님, 한국 천태종의 개조 의천 스님, 위기의 고려불교를 살린 정혜결사 지눌 스님, <삼국유사>의 저자 일연 스님, 간화선 선종을 드날린 태고·나옹·백운 스님, 선교를 회통한 청허 스님, 조선 최대의 선문논쟁을 벌인 백파와 초의 스님, 근대사의 고승 경허 스님까지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스님들의 생애와 사상을 통해 한국불교의 역사를 배울 수 있다.

강연에는 김성철 동국대 교수, 남무희 국민대 교수, 김원명 외국어대 교수, 동국대 교수 해주 스님, 김상현 동국대 교수, 이병욱 고려대 박사, 이덕진 창원문성대 교수, 조명제 신라대 교수, 황인규 동국대 교수, 고영섭 동국대 교수, 김방룡 충남대 교수, 변희욱 서울대 철학사상연구소 연구원 등이 강연자로 나선다.

또 9월 12일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는 이부승을 중심으로 <금강경오가해> 강좌가 총10회에 걸쳐 진행된다. 9월 17일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에는 총8회에 걸쳐 김형효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의 '마음혁명 부처님의 세상보기' 강좌가 진행된다.

이밖에도 9월 4일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오후 7시 30분에는 고려대 박사 범준 스님과 서재영 불광연구원 책임연구원이 강사로 나서 <육조단경>강의를 진행한다. (02)417-2551

이은정 기자

선수들과 함께 뛰는 올림픽 '모정불심'

지구촌이 스포츠 축제에 빠졌다. 2012 런던 올림픽이 7월 28일 '세대에게 영감을 (Inspire a Generation)'이란 주제로 화려한 막이 올랐다. 선수들은 4년간 흘린 땀의 결실을 맺기 위해 메달 사냥에 나섰다.

한국은 이번 올림픽에서 금메달 10개로 종합순위 10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금메달 획득 유력 선수 중 70~80%가 불자여서 불교계 관심이 더욱 뜨겁다. 하지만 누구보다 이들을 더 관심 있게 지켜보는 이들이 있다. 바로 선수들의 부모다.

부모들은 머나먼 타향에서 고생하고 있을 자식들을 생각하며 매일 부처님께 기도 드린다. 세상이 모두 선수들에게 '금메달'을 바라지만 모든 부모의 마음이 그러하듯, 이들은 자식들의 건강과 행복을 먼저 발원한다.

금메달 효자종목인 양궁대표팀 임동현 선수의 어머니 함선녀(52) 씨는 매일 아침마다 임 선수를 위해 108배를 한다. 현재 충북 청주에 거주하는 함 씨는 "재적 사찰이 수원 태고사지만 거리가 멀어 자주 갈 수가 없다. 대신 스님과 전화 통화를 자주 하며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고 말했다.

함 씨는 "스님이 조언을 해주셔도 혹시나 아들이 부담을 가져 경기에 지장을 줄까봐 직접 전하지 못한다"고 조심스럽게 귀띔한다. 이어 "대신 내가 스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기도하면 아들에게 전달될 거라 믿는다"고 확신에 찬 어조로 설명한다.

양궁대표팀은 7월 29일 남자단체전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메달 사냥에 나섰다. 함 씨는 사소한 행동·말투 하나가 아들의 경기에 영향을 미칠까 조심하는 눈치다.

양궁에 이어 7월 30일 경기를 치른 펜싱 대표 구본길 어머니 선태복(47) 씨는 이틀에 한번 새벽 4시가 되면 어김없이 대구 팔공산을 오른다. 혹여 아들이 부상당하지 않을까, 또는 부담감에 경기를 망치지 않

“부담될까 스님 말씀도 못 전해”

행동 하나에도 신경쓰는 어머니들

부담없이 최선을 다하길 축원

을까 노심조사하며 부처님께 아들의 건강을 기원한다.

선 씨는 "일을 나가야 하기 때문에 아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유일하게 새벽밖에 없다"며 "올림픽에 나간 아들이 무사히 경기를 마치길 바라는 마음에서 팔공산 갖바위서 기도 드린다"고 말했다.

시아머니 때문에 불교를 접하게 됐다는 선 씨는 아들이 운동을 시작하면서부터 더욱 열심히 절에 다녔다고 한다. 평소 경주 오봉산 주사암에 들러 예불을 올리지만 올

림픽에 출전한 구 선수를 위해 집과 가까운 팔공산 갖바위서 기도 한다고 밝혔다.

선 씨는 "장사를 하는 탓에 운동하는 아들에게 신경을 많이 써주지 못해서 항상 미안했다. 출국 전에는 혹여 부담이 될까 통화도 제대로 못하고 문자만 남겼다"며 "바라는 건 아들이 무사하게 돌아오는 것 뿐이다"라고 했다.

베이징올림픽서 '윙크 세러모니'로 큰

새벽 4시 팔공산 갖바위 기도

염주 손에 쥐어 주고

집에서 108배 하며 경기 응원

인기를 누린 배담민의 국민 동생 이용대는 정재성 선수와 호흡을 맞춰 8월 5일 배담민 남자 복식경기서 두 번째 금메달에 도전한다. 이용대와 정재성은 모두 독실한 불자다. 특히 이용대는 평소 불자인 어머니 영향으로 남다른 불심을 보여왔다. 이용대 선수의 어머니 이애자(51)씨는 런던으로 떠나는 두 선수에게 염주를 선물하며 경기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이 씨는 "이번에도 금메달을 따면 좋겠지만 그건 둘째 문제다"라며 "아들이 무사

히 경기를 마치면 그 뿐"이라고 담담하게 답했다. 이애자 씨는 "뜬다는 대로 전남 화순 양복사에 들러 아들을 위한 예불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씨는 "용대와 재성이 4년 동안 힘들게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를 얻으면 좋겠다"며 "부상당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 체조 역사상 첫 금메달리스트로 기대를 모는 양학선 선수는 8월 6일 남자 체조 도마 결선을 앞두고 있다. 양 선수의 어머니 기숙향(43)씨 역시 다른 국가대표 어머니처럼 "저도 괜찮다. 아들이 안 다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 씨는 양 선수가 슬럼프를 겪을 당시 그를 사찰로 데리고 가 다시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했다.

기 씨는 "평소 금메달을 따면 부모님에게 '집을 사드리고 싶다. 부모님을 편히 모시고 싶다'고 임버릇처럼 말하는 양 선수가 대견하고 미안하다"고 말했다. 기 씨는 바쁜 농사일로 인해 절에는 자주 못가지만 항상 아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했다.

기 씨는 "어려운 집안 형편 속에서도 잘 자라준 아들이 고맙고 대견하다"며 "런던 올림픽에 아들 딸을 보낸 모든 어머니들이 힘냈으면 좋겠다"고 특히 비인기종목 국가대표 선수들을 위해 더욱 더 열된 응원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soe84@hyunbul.com

캠핑하며 가족 사이 '情' 나눠요

한국불교문화사업단, 가족 캠핑 템플스테이 개최

캠핑하며 가족 간 정을 나누는 이색 템플스테이가 열린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법진)은 8월 10~12일 2박 3일동안 전북 완주 송광사에서 '서로의 별이 되자'를 주제로 가족 캠핑 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가족 중심의 캠핑 문화가 각광받고 있는 트렌드에 맞춰 템플스테이에 캠핑을 접목한 이번 행사는 산사체험과 캠핑을 일석이조로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행사는 108배, 명상, 예불, 운력, 공양 등 사찰체험인 템플스테이의 기본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한지 만들기, 연등 만들기, 연잎차 만들기, 장작패기, 떡매치기, 천연비누 만들기, 장승 만들기, 가족 도예 체험, 노래교실, 법고체험 등 다양한 상설 체험공간이 운영된다.

또한 가족 캠핑의 의미에 맞춰 가족 심

리상담, 사찰음식 만들기 등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특별 프로그램이 마련되며, 저녁에는 산사음악회, 캠프파이어, 가족 장기자랑 등 풍성한 문화행사와 함께 축제 한마당이 진행될 예정이다.

어린이들을 위한 놀거리도 다양하다. 한때는 야외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고, 불교 영어 강연도 펼쳐진다. 마지막 날에는 전주한옥마을 관광과 비빔밥 1,000인분 비빔기 체험 등 지역명소 탐방 프로그램을 구성해 여름방학을 맞은 아이들에게 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한다.

참가신청은 송광사 홈페이지(www.songkwangsa.org)를 통해 오는 31일까지 접수 받는다. 모집인원은 선착순 200가족(초등학생 자녀 가족)이며, 가족 대신 친구나 동호회 등의 4인 구성도 가능하다. 참가비는 4인 가족 기준 10만원이다. (063)243-8090-1 신종일 기자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좋은 소리는 스피커와 마이크에 의해 결정됩니다.

소장 : 김문화(海月) 직접설치
音響研究家 無線設備技師

파워덱스 앰프 스테레오 앰프 •高音質 무선마이크

스님께서 사용중인 '무선-핀 마이크'를 고성능 '헤드셋 마이크'로 개조 해 드립니다. (배 - 소리없이 웅장하고 맑은 소리를 책임지겠습니다.)!!

•법당전용 스피커 •일반 마이크 V-620

•무선 마이크 •특징: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고성능 탁상마이크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군포교의 전당!

논산훈련소 호국연무사 신축법당 원불 모연

사부대중의 정성과 원력으로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신축법당 낙성대법회를 봉행했지만, 10억원이 부족하여 완전한 회향을 못하고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 3500명 참석

불사금 후원 접수 중입니다

원불 / 불사금 후원 계좌번호
농협 301-0063-3042-71
제일은행 325-20-221949
국민은행 477401-01-179603 (예금주 : 군종특별교구)
문의안내 02)797-7266,749-8646

불사금 10억 원이 부족합니다. 한번 더 힘을 모아 주십시오!
▶ 호국연무사 신축법당 원불모연 불사
• 후불명회를 대신해 원불을 모십니다.
• 원불모연 동참금 1인 1불 100만원 (분할납부 가능)

대한불교조계종 군종특별교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83호 국방부 원광사 내 불사문의 / 안내 (02)797-7266,749-8646 홈페이지 www.gunindra.com